

충장으로 보도공사 전면 재시공

차시장 “특색없고 지저분” 즉각 중단 지시 바닥재 선정 투명성 여부 등 조사 불가피

광주시가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보도 포장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재시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5일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지역의 대표적 도심인 충장로를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로 가꿀 계획이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바닥재 색깔이 어둡고, 이물질로 인한 얼룩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공사를 곧바로 중단하고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보도 곳곳에 위치한 맨홀 부분의 포장 상태가 깔끔하지 못한 미관상의 문제점과 함께, 바닥재의 재질과 색깔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 문화전문가들은 충장로를 광주의 상징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색없는 단순 보도 포장사업을 넘어 광주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빛의 도시’ 광주에 걸맞는 거리 조명과 함께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나 홍콩 ‘영화의 거리’ 처럼 광주만의 보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재시공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여부, 바닥재 선정의 투명성 여부 등 충장로 특화의 거리사업 추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된 구간을 다른 포장재로 전면 재시공 ▲거리의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해 일부 구간만을 재시공하는 방안 ▲현 시공방식을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당초 보도 포장 바닥재로 다양한 무늬 연출이 가능한 대리석 등을 검토했으나 상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파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 화강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장로·급남로 일대 주민들과 상인, 시민 등이 도심 건물들이 대부분 흰색이나 회색 계열이어서 획일적인 느낌을 주는 데 바닥포장재 색깔까지 회색이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룩이 잘 생기는 결점이 있다며 시의 대책을 촉구해왔다.

문화중심도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실시되는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바닥포장 교체와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목적으로 1단계(충장로 1~3가)와 2단계(충장로 4~5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총 26억원의 사업비(지역 국비)가 투입,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시작돼 5일 현재 공정률이 77%로 이달 21일 준공 예정이다. 2단계 사업(사업비 22억원)은 2008년 완공 예정이다.

〈재희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충장로를 특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보도 포장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충장로 1가 입구. 맨홀 부분의 포장 상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바닥재가 깨지고 뒤물러 있다. /최희기자 choi@kwangju.co.kr

6월 항쟁 20년

20항쟁 주역들 지금은

시민단체 주축...왕성한 사회 참여



20년 전 광주·전남지역의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광주·전남본부는 87년 5월 18일 ‘5·18 제7주기 추도식’에서 공식 발표했다. 출범 당시 이름은 ‘민주헌법쟁취 범도민운동본부’였으나 27일 전국 본부의 발족과 더불어 지역본부로 이름을 고쳤다.

당시 국본 광주전남본부 지도부는 고문,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처(총무·조직·기획·재정 등) 등으로 구성됐다. 지도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의 항쟁 이후 발자취와 현재 모습을 알아본다.

◇정계·공직 진출=상임대표 정동년씨는 민선 광주 남구청장을 지내다가 지난해부터는 (주)안산도시개발 사장으로 있다. 또 1대 사무처장 윤강욱씨는 1998년 환경관리공단 감사를 하다가 2001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동년·윤강욱·이강씨 등 공직 진출

2대 사무처장이었던 이강씨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사무처장이었던 김중배씨는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민주당 광주 동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역시 사무처장이었던 정용화씨는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을 최근까지 지냈다.

기획국장 송선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국무총리 정부비서관으로 지내다 현재 대한지적공사 감사로 재직 중이다. 또 홍보국장 오병운씨는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다.

◇시민사회운동 및 종교활동=공동대표였던 이광우 전남대 교수는 지난 1998년 정년 퇴임한 후 5·18 재단 2대 이사장, 광주YMCA 이사장, 민주개혁국민

연합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민주화운동 기념관 광주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역시 공동대표였던 박석우 선생은 이후 재선 국회의원을 거친 뒤 단국대 이사장·5·18 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다산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안성례씨는 광주시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5월 어머니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명노근·조아라·홍남순씨 등 타계

재정국장이었던 김성집씨는 참여자치 21 대표로 활동 중이며, 총무국장 양강섭씨는 전남도위원을 지낸 뒤 현재는 환경미화사업 중이다.

국본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던 지선 선님은 2005년부터는 재외한민족센터 건립추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장성 백양사에 적을 두고 있다. 공동대표였던 남재희 신부는 광주 생촌동성당에서 목회활동 중이다. 공동대표 문병관씨도 시인으로 왕성히 뛰고 있다.

◇은퇴=고문 조비오 신부는 지난해 8월 광주 중앙동 성당에서 퇴임식을 하고 38년 사제 활동을 마감했다. 역시 고문이었던 윤기서 목사도 지난 2005년 수원교회 담임목사로서 은퇴했다. 상임대표 강신식 목사는 지난해 1월 무진교회에서 은퇴식을 하고 44년 목회 활동을 접었다. 또 공동대표 김재영 신부는 지난해 40년 사목 생활을 정리했다.

◇타계=공동대표를 맡았던 신기하 의원이 지난 1997년 대한항공기 폭 추락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으며, 역시 공동대표였던 명노근 전남대 교수도 2000년 타계했다. 고인이었던 ‘영원한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여사와 ‘재야인권 운동의 대부’ 홍남순 변호사는 지난 2003년과 지난해 10월 타계에 현재 5·18묘지에 안장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노대통령 선관위 고발

노대통령 “국회연설 하겠다”

넵센스 CRACKER
‘넵센스’ 티켓 발매중!!
2007.6.30-7.1/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유망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중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홍보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홍보실 1588-5051 ▶ T.(061)360-5000

한나라당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내용과 관련, 중앙선관위에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조속히 검찰 고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에서 한나라당과 이병완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정략적” 반대

노무현 대통령은 5일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간 큰 쟁점이 없는 데도, 정치적 이유로 지체되는 법안이 많다”면서 “국민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국회 연설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현호선 대변인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용의 상징 - 비독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 광고심의필: 918-0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청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우리가족 활력에너지

비독·씨

THE KOREA'S Most Admired COMPANY

유한양행
200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세 3위 3위 (제약부문 1위)

1일(아침·저녁) 2정 **우리가족의 힘 - 비독씨**

비독씨에 함유된 비타민B군과 비타민C는 수용성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 부산(051)462-4973 • 대구(053)752-0515 • 광주(062)382-5400 • 대전(042)627-9003 *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합니다. (02-380-1658 www.kfda.go.kr)